

# 민주주의 국민의식 조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4명 중에 3명은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으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5.0%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답했으며, 민주주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4.9%였다.

이번 조사는 만19세 이상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74.9%가 민주화운동이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으며, 가장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사건으로는 52.1%가 5.18민주화운동을 꼽았다.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5%를 차지하였다.

## 조사 설계

### 1. 기본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모집단)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분석사례수 (표본 수)	• 총 1,000명
표집방법	• 지역/성/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비례할당
최대 허용 오차	• 95% 신뢰수준 하에서 ±3.1%
조사방법	• 컴퓨터(CATI system)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조사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기간	• 2008년 10월 11일~10월 13일
조사기관	• (주)리서치플러스

## 2. 조사 내용

주 제	세부 내용
민주주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 평가</li> <li>•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li> <li>•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우선 해결 과제</li> <li>• 본인의 정치적 견해</li> </ul>
민주화운동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인지도</li> <li>• 민주화운동 사건에 대한 최초 인지</li> <li>•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li> <li>•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기여도)</li> </ul>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운동 기념 · 계승 필요성</li> <li>•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인지도</li> </ul>
민주적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li> <li>•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태도</li> </ul>
인구통계학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역 및 지역규모</li> <li>• 성별, 연령</li> <li>• 학력</li> <li>• 직업</li> <li>• 월 평균 가구소득</li> <li>• 원적지</li> </ul>

## 3. 응답자 특성

		사례수	비율
		N	%
[전 체]		(700)	100.0
성별	남성	(354)	50.6
	여성	(346)	49.4
연령별	10대	(83)	11.9
	20대	(130)	18.6
	30대	(155)	22.1
	40대	(152)	21.7
	50대	(105)	15.0
	60세 이상	(75)	10.7
지역별	서울	(151)	21.6
	부산	(53)	7.6
	인천	(37)	5.3
	대구	(37)	5.3
	광주	(18)	2.6
	대전	(18)	2.6

		사례수	비율	
		N	%	
[전 체]		(700)	100.0	
지역별	울산	(17)	2.4	
	경기	(155)	22.1	
	강원	(21)	3.0	
	충북	(20)	2.9	
	충남	(29)	4.1	
	전북	(27)	3.9	
	전남	(26)	3.7	
	경북	(37)	5.3	
	경남	(45)	6.4	
	제주	(9)	1.3	
지역 규모별	대도시	(331)	47.3	
	중소도시	(238)	34.0	
	읍면지역	(131)	18.7	
직업별	관리직/전문직	(45)	6.4	
	사무직	(113)	16.1	
	서비스/판매직	(223)	31.9	
	기능/기계/노무직	(57)	8.1	
	농/어/축산업	(4)	0.6	
	전업주부	(112)	16.0	
	학생	(125)	17.9	
	퇴직/무직	(21)	3.0	
	학력별	중졸/재학 이하	(108)	15.4
		고졸/재학	(303)	43.3
대졸/재학 이상		(289)	41.3	
가구 월 소득별	100만원 미만	(14)	2.0	
	200~299만원	(62)	8.9	
	300~399만원	(188)	26.9	
	400~499만원	(237)	33.9	
	500만원 이상	(179)	25.6	
	모름/ 무응답	(20)	2.9	
	종교별	불교	(151)	21.6
기독교		(156)	22.3	
천주교		(65)	9.3	
기타 종교		(4)	0.6	
종교 없음		(324)	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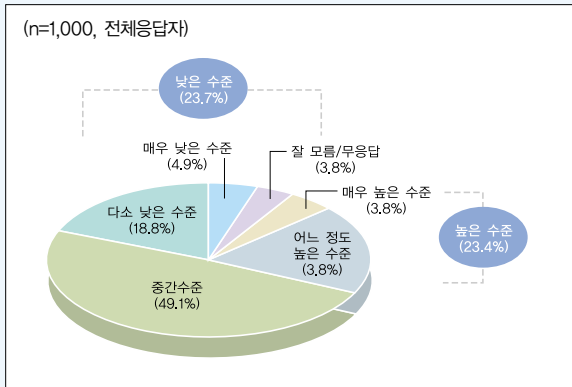
조사결과 요약

1. 민주주의 인식

■ 우리나라 민주화 수준

: 높다 23.4%, 중간 49.1%, 낮다 23.7%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에 대해서는 ‘중간 수준’ 이라는 평가가 49.1%를 차지했으며, ‘높은 수준’ 이라는 평가와 ‘낮은 수준’ 이라는 평가 비율은 각각 23.4%와 23.7%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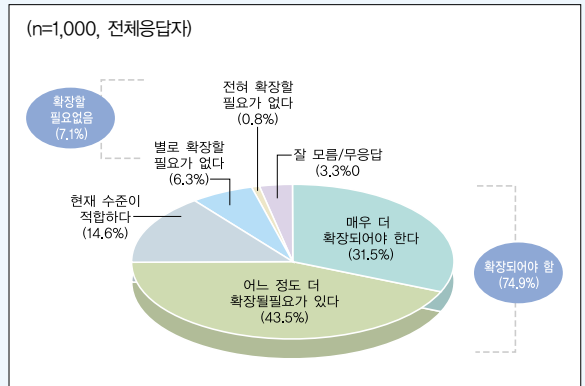


■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장 필요성

: 확장되어야 74.9%

우리 사회가 앞으로 민주주의를 더 확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확장되어야 한다’ 31.5%, ‘어느 정도 확장될 필요가 있다’ 43.5% 등 ‘확장되어야 한다’ 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74.9%를 차지했다. 한편, ‘현재 수준이 적합하다’ 는 응답은 14.6%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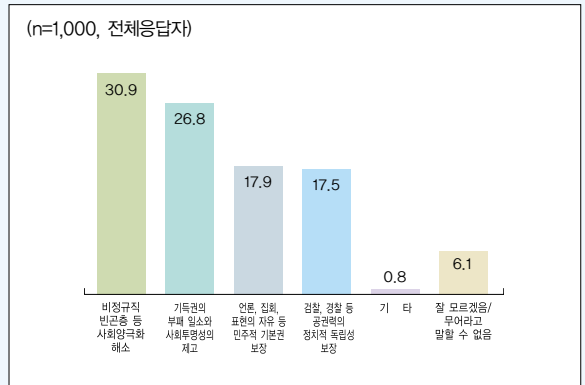
‘확장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은 7.1%에 불과했다.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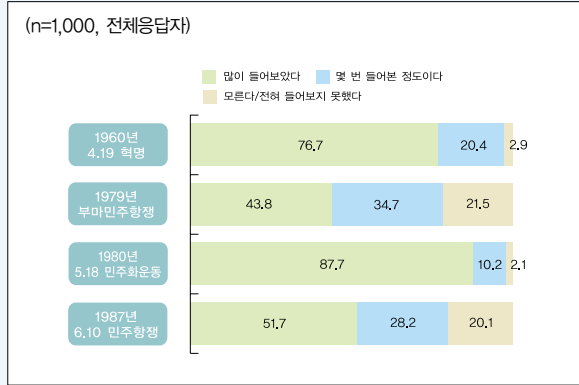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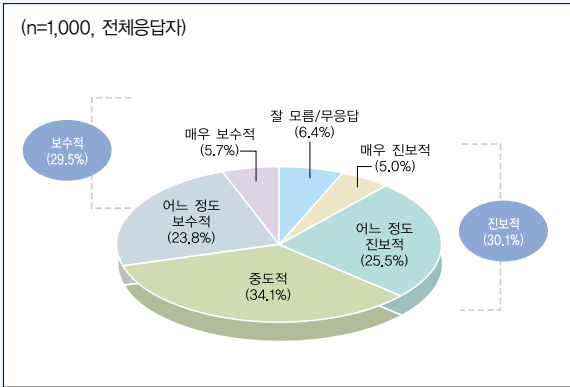
사회 양극화 해소 30.9% > 사회투명성 제고 26.6%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가 30.9%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득권의 부패 일소와 사회투명성 제고’ 26.8%,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 17.9%,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17.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치적 성향 : 진보 30.1% , 중도 34.1%, 보수 29.5%

자신의 정치적 성향· 견해에 대해서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았음.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매우 진보적’ 5.0%, ‘어느 정도 진보적’ 25.2% 등 30.1%였으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매우 보수적’ 5.7%, ‘어느 정도 보수적’ 23.8% 등 29.5%로 조사되었다.



■민주화운동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 5·18민주화운동 > 4·19혁명 > 6·10민주항쟁 > 부마민주항쟁

민주화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역시 앞서 각 사건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운동’이 52.1%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음. 그 다음으로 ‘4·19혁명’이 36.1%의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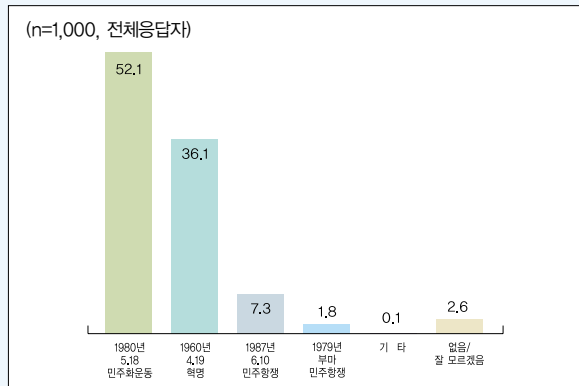
한편, ‘6·10 민주항쟁’ (7.3%)과 ‘부마민주항쟁’ (1.8%)에 대한 응답률은 다소 낮았다.

2. 민주화 운동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인지도

: 5·18민주화운동 > 4·19혁명 > 6·10민주항쟁 > 부마민주항쟁

민주화 관련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다’는 응답률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8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960년 4·19 혁명’ 76.7%, ‘1987년 6·10 민주항쟁’ 51.7%, ‘1979년 부마민주항쟁’ 4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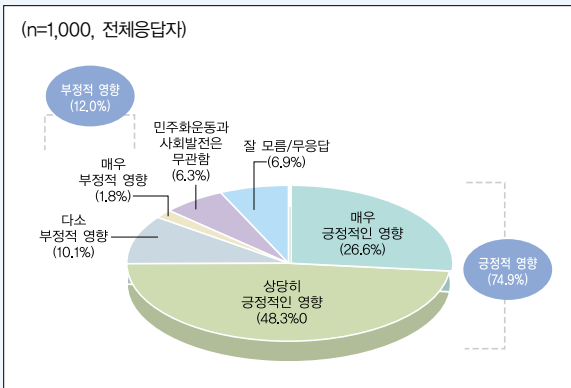


■ 민주화 운동과 사회 발전

: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74.9%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6.6%,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8.3%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74.9%를 차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매우 부정적 영향' 1.8%, '다소 부정적 영향' 10.1% 등 12.0%였으며, '민주화운동과 사회발전은 무관하다'는 의견은 6.3%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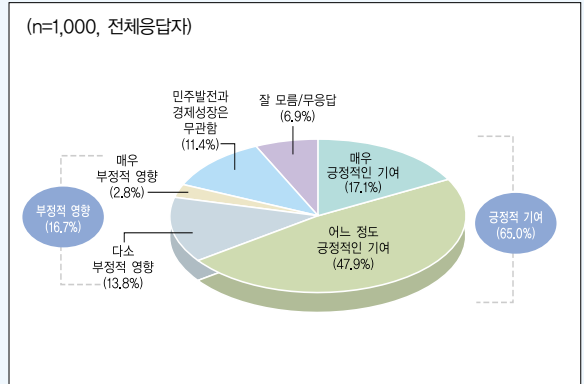


■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

: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65.0%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의견은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17.1%,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47.9% 등 65.0%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 16.7%(매우 부정적이 영향 2.8%, 다소 부정적 영향 13.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민주발전과 경제성장은 무관하다'는 의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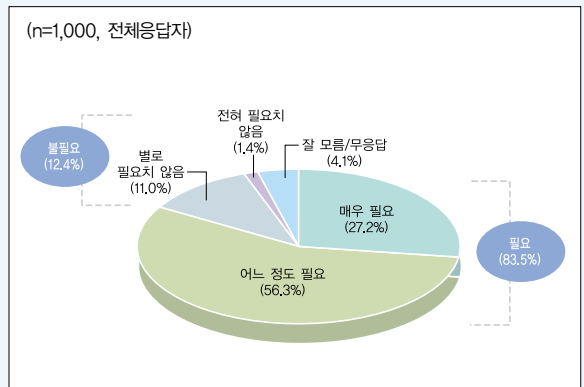
11.4%를 보였다.



3.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 필요성 : 필요하다 83.5%

그 동안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27.2%, '어느 정도 필요하다' 56.3% 등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83.5%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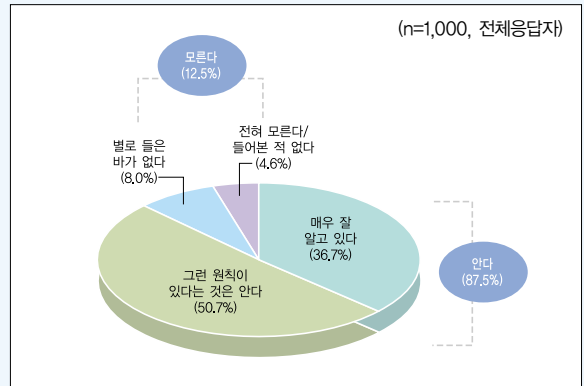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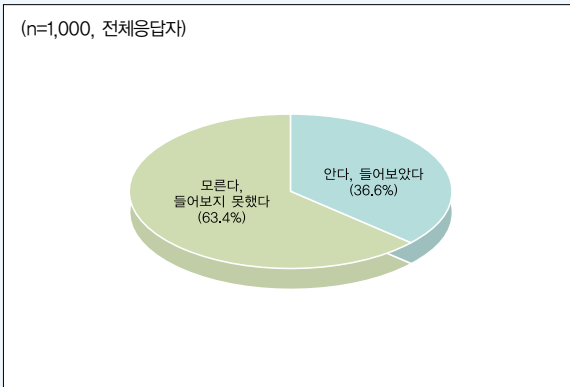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 필요치 않다' 1.4%, '별로 필요치 않다' 11.0% 등 12.4%에 불과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인지도 : '안다/들어보았다'

36.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안다' 혹은 '들어보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6.6%이며, '모른다' 혹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응답은 63.4%를 차지했다.



■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대응방법으로는 '응하되 무슨 일 때문에 검문을 하느냐고 이유를 묻는다'가 45.5%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다. '경찰 신분증 제시와 검문 이유를 묻고 검문이 합당한지 이유를 판단해서 대응한다'가 41.6%를 차지했으며, '그냥 순순히 응한다'는 응답은 12.2%로 조사되었다.

4. 민주적 권리

■ 미란다원칙에 대한 인지도 : 매우 잘 알고 있다 36.7%, 있다는 것은 안다 50.7%

미란다원칙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 36.7%,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은 안다' 50.7% 등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87.5%를 차지했다.

반면, '전혀 모른다' 4.6%, '별로 들은 바가 없다' 8.0% 등 '모른다'는 응답은 12.5%이다.

